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햄부기 복치기 상상북이

1주차	일시	4월 18일 8:00~9:00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소정(2311149)	O
		김민서(2531163)	O
		강예빈(2303001)	O
		안솔(2111037)	O
		서정재(2593043)	O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p26~63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민서, 안솔, 예빈, 소정, 정재] 1.FAO에서 경제적 기아(외부 요인)와 구조적 기아(계층 구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인구조로 따졌을 때 어떤 기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나요? 안솔: 남미나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 굶주리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에 보았을 때 경제적 기아에서 식량을 낭비하기 때문에 남미나 아프리카 등 굶주리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남미, 아프리카 특정 사람들은 충족하게 먹고 산다. 결국, 외부의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기아가 더 많이 발생한다. 박소정: 외부 요인인 허리케인, 사막화 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은 허리케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세계에서 사막화는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계가 균등하게 기아가 같은 비율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나라는 자족경제가 되어야 한다. 김민서: 구조적 기아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외부 요인은 단시간에 생긴 효과이지만 구조적 기아는 계층에 의해 지속적 물임을 지속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기아를 벗어나기 어려울뿐더러 이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서정재: 구조적 기아가 경제적 기아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기아는 단기적이며,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아인 반면, 구조적 기아는 장기적이며, 제도 문제, 사회 문제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기아이기 때문이다. 강예빈: 저는 경제적 기아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계층 구조를 가졌을 때 이미 식량을 비축한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있어도 기아의 수가 늘어날 일은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 기준에서 외부 요인은 그들을 기아로 만들기에 충분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주차	토론 내용	2. 기아 인구의 1위는 아시아입니다. 어느 위치가 제일 기아 수가 높을 것 같나요?? (ex. 동아시아, 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안솔: 남아시아 기아의 수가 제일 높을 것 같다고 예상한다. 남아시아 중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인구 수가 제일 높으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박소정: 동아시아가 의외로 기아의 수가 높을 것이다. 중국을 보게 된다면 인구는 많지만 주민등록도 없는 이들이 아직까지도 넘쳐난다. 이들을 고려하였을 때 잠재적인 기아의 수가 많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김민서: 동남아시아가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빈부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힘든 수준까지 기아의 수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식량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재: 인도일 것 같다. 파키스탄과 같은 동아시아 나라는 인구수가 많은 반면, 부실한 농업 정책, 정부의 부패, 불평등한 계층 구조 등의 외부 요인이 많은 구조적 기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강예빈: 동남아시아가 높다고 생각한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처럼 빈부격차가 높은 곳은 식량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기아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	--

2주차	일시	5월 13일 17:00~18:00 상상베이스 세미나실(B11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소정(2311149)	O
		김민서(2531163)	O
		강예빈(2303001)	O
		안솔(2111037)	O
		서정재(2593043)	O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64~93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박소정, 안솔, 김민서, 이고은 교수님, 강예빈, 서정재] 1. 가난한 나라의 농업은 왜 자립하지 못하고 외국의 식량에 의존하게 되었을까? 서정재:농업 덤핑 정책 때문이다. 책에서도 강하게 비판한 농업 덤핑은 의도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낮추고, 값싼 농산물을 개발도상국에 파는 정책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은 대부분 생계형 농민들이기에 일부러 비싼 자국의 농산물을 사먹을 여유가 없다. 농업 덤핑 정책과 같은 정치적,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농업 자립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강예빈: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생계형 농민들이 많아 장기적인 농업 개발은 꿈도 꾸기 어렵다. 그나마 있어야 할 기업의 투자도 거의 없어농업 기반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값싼 외국산 식량에 의존하게 되며 결국 우리 농업의 자립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안솔:단순 농사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무역구조에 대한 정책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값싼 외국 농산물이 유입된다. 유입된 외국 농산물은 단기적으로 좋아보일지 몰라도, 결국 현지 농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책에서 지적한대로, 이렇게 농민이 경쟁력을 잃고 파산하고 도시로 이주하면 농업기반은 더욱, 악화되고 수입식량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농업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결코 자립할 수 없다.	

2주차	토론 내용	김민서: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형성돼버린 세계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국의 정부조차 자국의 농업을 도와 자립하는 것보다 값싼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선택한다.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닌, 값싼 외국 농산물로 인해 그 기술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러한 나라가 많아지다 보니 자국의 농업은 발전할 기회조차 없어져버린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박소정: 안정적인 생활이 불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처럼 나라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 안에 있는 불안함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외국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으며 선진국의 눈에 띄어야 되기에 그들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도 가지고 있다. 2. 구호단체들이 전쟁을 더 연장시키고, 살인자들을 배불리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104~106) 서정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불투명한 과정을 거친 구호활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구호 자원이 무장세력에게 약탈당하거나 부패한 권력자들에게 가는 일이 구호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구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구호 자원이 어디로 가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구호 활동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구조활동이라 생각한다. 강예빈: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구호식량이 실제로 무장단체나 지역 권력자에게 먼저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식량은 거래나 통제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중간에서 빼돌려지는 일도 적지 않다.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박소정: 구호단체들의 목적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면 전쟁을 연장시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예시를 생각한다면 환경자산단체들이 큰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요즘, 구호단체들의 기부를 하더라도 그들의 이동비에 이용되거나 뚜렷한 내역도 없다. 이런 현실을 보았을 때 살인자가 아니라도 내적인 인물들의 배불리게 하고 있다는 말은 어느정도 사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안솔: 구호 물자가 전쟁 자금으로 쓰이고, 구호 캠프에는 현실적으로 질서가 있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 단체의 선한 의도와 관심은 필요하다. 그러나, 도움이 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현지의 자립을 돕고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단지, 물자를 공급하고 단기적으로 돕는 방법에서 벗어나 직접 현지 구조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김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 공급하는 구호 물자들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쟁이 연장됨을 돕는 꼴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구호 물자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권력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기에 도움을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닿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	---	---

2주차	토론 내용	3. 여러분은 학교에서 기아를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배웠고 부족한 점이 뭔지 안 배웠다면 어떤 것을 배웠고 만약 배운다면 어느 면을 다루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서정재: 초등학교 때 영양실조 아이에 대해 배운 적 있다. 한 아이가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일하고, 편찮으신 부모님까지 부양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았다. 이 아이에게 응원하는 편지를 쓰고,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후원하는 활동이었다. 난 편지와 돈을 보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후원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그때는 뿌듯한 감정이 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초등학교는 기아에 대해 이해보다는 공감하는 활동이 많았다. 중, 고등학교 때는 대입과 같은 문제 때문에 기아를 깊게 다루지도 않고 넘어갔다. 초등학교에서라도 기아에 대해 이해하거나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강예빈: 배우긴 했지만 동정심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기아를 그저 안타까운 일로만 받아들이게 했고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는 잘 다루지 않았다. 구조적인 문제나 책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결국 불쌍하다는 생각만 남는 수업이었다. 박소정: 기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사회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기아를 위한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죽어가는 나라를 보고 아쉬움이 들 따름이었다. 현재, 기아의 상태와 문제를 알 수 없기에 과거보다 현재의 문제를 다루길 바란다. 안솔: 세계의 기아, 특히 아프리카의 빈곤에 대해 배운 적은 있음. 그러나, 빈곤의 정치적, 구조적, 역사적 원인에 대해서는 학습하지 못했다. 기아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의 현재 상황보다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기아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부에서 나아가 기부를 포함하는 원조 시스템에 대한 구조 및 단계의 교육이 필요하다. 김민서: 경제적 빈곤에 대해 배우게 되면서 경제적 기아에 대한 것을 같이 배우게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람들이 배우게 된다면 흔히들 아는 경제적 기아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식량에 닿을수조차 힘들어 기아가 되는 구조적 기아도 함께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사회의 문제가 큰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

3주차	일시	6월 2일 11:00~12:00 ZOOM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소정(2311149)	O
		김민서(2531163)	O
		강예빈(2303001)	X
		안솔(2111037)	O
		서정재(2593043)	O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p.94~117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안 솔, 김고은 교수님, 서정재, 박소정] 화면 오류로 튕겨 사진에 없음. 1. 굶주림은 식량 부족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전세계 기준) 박소정: 분배의 문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격차가 생기는 것이 바로 식량과 재화는 있지만 자신의 경제 이익을 위해 선뜻 주지 않는다. 교류라지만 자신의 나라가 이익이 있도록 성립한다. 결국, 국내의 차상위 계층에게 주는 것처럼 나라 간 나라에서도 분배의 차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3주차	토론 내용	서정재: 식량 부족과 분배 문제 둘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분배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에 동의한다. 세계 식량 생산량은 100억명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나라의 가난, 미흡한 인프라, 선진국의 식량 낭비 등의 이유 때문에 식량이 조달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안솔: 책의 전반적인 내용대로, 전세계의 식량은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이 원인이다. 어떤 국가에서는 남은 음식을 버리고, 어떤 국가에서는 기아 문제를 겪기 때문이다. 특히 분쟁지역의 경우 들어올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식량이 양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이다. 김민서: 매우 동의한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음식을 낭비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 이유에는 구조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분배가 계속 이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량은 부족한 적이 없고, 빈부격차와 구조적인 불평등이 굶주림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2. “국제기구(예: IMF, 세계은행)는 빈곤 해결에 기여하는가, 악화시키는가?” 박소정: 상황에 따라 해결 상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빈곤 해결에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IMF 같은 경우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은 민족의 노력을 볼 수 있지만, 빈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아마,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곳은 높은 확률로 악화될 것이다. 안솔: 국제기구는 빈곤해결에 기여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점 명확하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책에 그칠 뿐이다.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의 현지 문화와 정치상황, 환경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해결책으로는 국제기구의 의존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자립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국제기구의 도움은 빈곤 해결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서정재: 국제기구는 빈곤을 악화시키기 쉽다. 국제기구의 구조조정 덕분에 개발도상국이 인프라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 부작용으로 실업률 증가, 공공요금 인상처럼 빈곤층에 타격을 입혔다. 또한 세계은행은 정책을 신자유주의로 강요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구조조정을 할 때에는 경제적, 정치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히 다가가야 하지만 정책을 강요하여 자국 산업에 혼란을 주었다.
----------------	------------------	---

3주차	토론 내용	김민서: 국제기구는 지속 가능한 지원보다는 단기적인 구호를 통해 성과 중심의 사업에 집중한다. 이로 인해서 근본적인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방편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화전농업으로 인해 삶의 터를 잃지만 해 부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지속할 수 있다. 여러분이라면 이 농업 방식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박소정: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면 발전할 수 없다. 화전 농업 방식이 지속된다면 문화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이들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맞는 환경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 농업 방식을 바꿔야된다. 적어도, 그들이 불 태운 장소에 식물이라도 심고 갔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안솔: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화전 농업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법에 지속 가능한 방식을 보완해 나가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식을 택해야한다. 산림파괴는 결국 식량 위기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부족의 삶을 붕괴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농업으로 생계 수단을 변화시켜야 한다. 서정재: 화전농업의 대안을 찾을 것이다. 환경이 화전농업으로 숲이 파괴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화전농업의 대안으로 아그로포레스트리(가축과 함께 농업하는 것)를 사용하겠다. 숲 파괴를 막고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농업 법이라고 생각한다. 김민서: 전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농업이기 때문에 아예 이용하지 않는 건 힘들다고 생각한다. 대신, 화전 농업을 이용하면서 다른 방법의 농업 방식을 찾고 보완하며 이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	--

4주차	일시	6월 3일 17:00~18:00 상상베이스 세미나실 (B111)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소정(2311149)	O
		김민서(2531163)	O
		강예빈(2303001)	O
		안솔(2111037)	O
		서정재(2593043)	O
	진도	도서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진도페이지: p118~153 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서정재, 강예빈, 안솔, 김민서, 박소정] 1. 세네갈은 비옥한 땅이 있음에도 땅콩만 수출하고 그 외 음식은 수입한다. 이에 세네갈 정부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것인가? 박소정: 비옥한 땅이 있음에도 과거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안정성’의 원인이라고 본다. 새로운 도전, 행위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상태의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 정부에서 보았을 때, 안전성을 중시하게 된다면 나라는 발전할 수 없지만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지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바꾸지 않고 지속할 것이다. 안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은 오랜 시간 단일 작물 중심의 경제 구조가 유지되었다. 또한, 자국의 식량에 집중하지 못한 수출용 작물 위주의 농업 정책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세네갈은 단순히 국가의 정책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와 식민지 시대의 맥락에 의해 제한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제기구로부터 구제 금융을 비롯한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 구조 조정에 여러 조건이 붙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자국 식량 자급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또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단일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농민과 유통업자가 있어 짧은기간에 구조 전환을 시키는 것은 국가에 경제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서정재: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게 아닌, 현실적으로 못 바꾼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무역 시스템은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떨어뜨린다. 이에 세네갈 정부도 세네갈 도약 계획, 농업 가속화 프로그램처럼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정책을 세웠지만, 인프라와 기술 부족의 이유로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강예빈: 현재 있는 것들을 바꿀 돈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땅콩 수출하기 위해 비료, 공장 등 세팅이 되어 있는 마당 이를 엮고 새로운 농사를 시도하는 것이 리스크가 크고 그만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을 바꾸는 순간 다른 나라는 반길 일 없기에 지원받을 돈도 없다.	

4주차	토론 내용	김민서: 단일 구조의 농업 환경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단일 작물 농업을 해 왔고 그만큼 다른 나라에게 의존도가 높았기에 갑자기 농업이나 산업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은 이미 자리잡아버린 경제 구조로 인해 내세우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2. 마지막으로, 사회구조를 바꾸어 자립적인 경제를 가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자급자족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박소정: 불가능하다. 각 나라의 겪어온 역사들이 모두 다르고 지리, 날씨, 온도 등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경제를 가꾸기 위한 행위를 시도한다면 수 많은 도전을 해야된다. 이를 하게 된다면, 자족경제를 성공할 시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자원의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며 위에 말했던 것처럼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나라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솔: 물론, 이미 세계화된 경제 구조에서 다른 국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자급자족경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모든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 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제 사회는 세계 무역 시스템에 참여와 의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 전체가 아닌 지역 단위 중심으로 자립 경제 실험이 지금도 진행중이며 성과를 내고 있다. 외부의 협력과 국가의 강한 장기적인 의지가 더해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서정재: 가능성은 있는 얘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사회구조를 바꾼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 교육, 기술, 무역, 금융 시스템 등의 거의 모든 분야를 바꾸는 말이라 생각한다. 세네갈을 예로 들면, 땅콩 산업에 의존하려는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다른 대체 수출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과 무역 시스템이 발전해야 하며 금융적으로 뒷받침까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요인들을 고려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성과를 거둔다면 가능성은 있는 얘기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민서: 자급자족경제라는 말 자체가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교류와 무역이 발달하고 필수적 요소로 여기는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완벽한 자급자족경제란 일어나기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구조를 바꾸면 그것이 보편화되고 받아들여지는 데까지도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시간을 들인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자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강예빈: 가능성은 있지만 그들의 노력과 마인드에 따라 결과는 다를 것이다. 자급은 스스로 그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자급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다면 전세계 나라는 풍요롭고 환경은 오염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빈곤이 있다는 것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인물들을 도와줌으로 그들을 성장 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	---	--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박소정 (2311149)	중학교 때 읽어보던 책으로 현재 보증판이 나온 상태이다. 전 책과 보증판의 내용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독서클럽의 묘미였던 것 같다. 무엇보다 자신이 아닌 남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작년에도 이 활동을 하였지만 특히, 올해는 새로운 구성원으로 진행하니 재미도 있지만 색다른 교류를 만들 수 있어 한 학기동안 어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어 좋은 활동으로 남을 수 있었다.
	2	김민서 (2531163)	나는 이 독서모임에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기아 문제가 단순히 식량 부족의 문제라고 믿고 살았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구조적인 부분이 기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책으로 읽고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혼자 독서를 할 때보다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며 독서를 하게 되니 나의 시야도 넓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3	강예빈 (2303001)	이번 독서 클럽을 통하여 기아에 관하여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자신의 처지에 관해만 생각한 내 자신이 조금 창피했다. 기아에 관해 현재 여러 나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안솔 (2111037)	‘세계는 왜 굶주리는가’를 읽고 나눈 독서클럽 활동은 그동안 단순하게 생각한 기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찾으며 구조적인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했다. 실제 식량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점이 인상깊었고, 토론을 통해 기아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스템의 결과라는 점을 깨달았다.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할 때보다 독서클럽활동은 보다 더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사회문제를 더욱 깊이있게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5	서정재 (2593043)	이 책을 읽기 전엔 ‘왜 먹을 것이 없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는 ‘왜 먹을 수 없는가?’ 란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농업 덤핑,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걸 알면서도 구호물품을 빼돌리는 부패한 정부, 숲을 파괴하는 화전농업을 그만두고, 탄소배출을 완화하자는 선진국 등 세계는 제법 이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이기적임이 납득되는 이유라 더 가슴아팠다.